

4년만에 쓰는
새사연 이야기



대한민국의 정직한 나침반 새사연의 바늘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싱크탱크(Think Tank).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 전략을 연구하는 두뇌 집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언뜻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 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자국의 뛰어난 두뇌들을 모아 전쟁에 활용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생각하는 무기’ 였던 셈입니다.

대한민국 싱크탱크의 부끄러운 자화상

최근 미국에서 가장 주목 받는 싱크탱크는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청사진으로 평가 받는 657쪽짜리 보고서 <미국을 위한 변화>가 바로 이 싱크탱크의 작품입니다. 참고로 2003년 문을 연 미국진보센터는 2008년 대선 당시 상근직원 125명에 한해 예산은 약 2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삼성경제연구소는 70명의 박사급 연구원을 비롯한 120명의 연구진을 갖추고 한해에 1천억 원 이상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미국진보센터 보다 못할 것이 없으니 능히 한 나라의 나침반 구실을 할 만하다고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한때 삼성경제연구소에 몸 담았던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삼성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독립성이 문제였습니다.... 삼성 문제에 이르러서는, SERI 연구원 사이에서는 의견의 다양성과 논쟁이 사라졌습니다. 삼성 수뇌부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니, ‘생각하는 힘’ 이 멈춰 버린 것입니다.”

무릇 나침반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북을 가리키는 ‘바늘의 정직함’ 입니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국내의 많은 기업 연구소와 국책 연구소들은 정직한 바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최근 4대강 사업의 실체를 왜곡했다며 연구원이 양심선언을 했던 건설기술연구원이나, 신임 원장이 친시장, 반노조 시각을 연구원들에게 강요해 노조의 파업을 부른 한국노동연구원의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새사연의 바늘을 지키는 힘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갈 곳을 잃고 흔들리는 이유는 어쩌면 정직하게 자복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갖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한 바늘을 가진 싱크탱크입니다.

새사연에는 7명의 상임연구원을 비롯해 12명의 상근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삼성경제연구소의 꼭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새사연이라는 나침반으로 방향을 찾으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는 데 조금은 서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사연의 바늘은 정직합니다. 어떠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된 싱크탱크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 회원 총회를 앞두고 <새사연 이야기>를 내놓은 이유는 회원 여러분과 새사연의 바늘을 점검해보기 위해서입니다. 4년 전 문을 연 새사연의 첫 마음이 어떠했는지, 지난 4년 간 얼마나 성실하게 대안을 연구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의 뜻을 모아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려는 뜻입니다. 오직 회원 여러분들만이 새사연 바늘의 방향을 바꿀 수도, 또 지켜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새사연을 믿고 말없이 지켜봐주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다함없는 감사를 전합니다. 부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총회가 대가족의 가족회의로서 그 의미를 다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따뜻한 봄을 앞둔 3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드립니다



새사연의 **대안 연구** 이만큼 왔습니다

- 금융과 고용을 중심으로 경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
- 교육과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으로 연구 의제 확산 시도



금융과 고용 ■■■■□□

신자유주의를 움직이는 두 개의 바퀴, '금융 세계화'와 '고용 유연화'를 겨누다

새사연은 경제 영역, 그 가운데서도 특히 '금융과 고용' 두 분야의 연구에 힘써왔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의 금융화·세계화'와 '고용(노동)의 유연화'라는 두 개의 바퀴를 한껏 키우며 질주해온 패러다임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스스로 돈을 벌어들인다'는 이른바 '머니 워킹 이코노미(Money working economy)'에 대한 환상은 인간의 노동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금융이 지배하는 신세계를 창조했지만 최근 전 세계를 뒤흔든 미국 발 금융 위기는 그 모든 것이 신기루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 사회적 재부를 창출하는 경이로운 금융 메커니즘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은 고위험 고수익의 투기판을 벗어나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경제의 물길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가는 은행에서 시작된 물길이 마르거나 넘치지 않고 흘러 실물경제 곳곳을 고르게 적시도록 해야 하며, 설새 없이 밀려드는 초국적 투기자본으로 물의 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자본·외환시장에 튼튼한 독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이 새사연이 생각하는 '금융의 공공성 회복'입니다.

인간의 노동은 여전히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자 원천입니다. '더 많은 빛'이 더 많은 임금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던 기대는 거품과 함께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다시금 노동의 가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국가는 더 많은 빛이 아니라 더 많은 노동의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사연이 생각하는 '고용의 국가 책임성'입니다.

기업 ■■■□□□

주권이 실종된 삼성공화국에서 기업의 민주주의를 묻다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란 비아냥은 우리 사회의 권력 피라미드에서 대기업(자본)이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 국면에서도 수조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거머쥔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초대기업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기업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새사연은 기업의 전근대적 소유 구조나 시장 독과점, 또는 사회적 책임부재에 대한 비판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자본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통제가 그것입니다. 이는 새사연이 그리는 민주주의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가계 ■■■□□□

GDP와 주가의 그늘에 가려진 우리 이웃들을 위한 경제학을 쓰다

‘이코노미(economy)’, 즉 경제의 어원은 가정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oikos와 관리를 뜻하는 nomo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경제란 본래 ‘집안 살림’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학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의 유명한 말에는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통찰이 담겨있습니다.

오늘날 마치 GDP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존재하는 듯 보이는 저 무수한 경제 이론과 정책들에 맞서 새사연은 가계, 즉 우리 이웃들의 살림살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학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제학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

한국 경제의 척박한 변방,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며 전체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지만 대기업의 횡포와 금융기관의 외면,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 역시 농업의 붕괴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폭발적으로 유입이 늘어 현재는 종사자 수만 자그마치 6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집 나간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새사연은 한국 경제가 지나친 대외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내수를 기반으로 한 보다 단단한 경제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사연이 희망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교육 ■■■□□□

대한민국의 절망과 희망, ‘수평적 다양화’로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다

경기 침체의 한복판을 지나온 2009년에도 사교육비 규모는 또 다시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지역에 따른 지출 규모의 차이도 커졌습니다. 이쯤 되면 교육은 더 이상 질긴 가난의 사슬을

끊어줄 ‘희망’의 다른 이름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높은 장벽과 그 너머에서 고스란히 대물림되고 있는 불평등 앞에 ‘절망’하고 맙니다.

교육은 소수의 엘리트가 살아남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밟고 서는 각축장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이 가진 잠재력의 크기만큼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돕는 성장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사연이 개척하려는 교육의 새로운 길입니다.

보건의료 ■■■□□□

민영화 말기 선고 받은 한국 의료에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구조 개혁을 처방하다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이른바 빅4 병원의 시장 과점과 그로 인한 중소·지역 병원의 몰락,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열악한 의료 서비스, 의료기관들 사이의 끝모를 몸집 키우기 경쟁, 수익성을 좇아 비급여 영역만 커진 기형적 공급 구조 등. 민영화(영리화) 말기 선고를 받은 한국 의료에 보이는 심각한 증상들입니다.

의료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려는 정부는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치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체급도 규칙도 없는 무한경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자본 투자의 길을 열겠다는 것은 결국 한껏 달아오른 도박판의 판돈을 키우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새사연은 더 이상의 민영화를 막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

자살률 일등, 출산율 꼴등의 사회, ‘살 맛 나는 세상’을 향한 살가운 연구로 보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가 가장 많은 나라 그리고 자식 낳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의 크기가 곧 나와 내 이웃의 행복의 크기를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새사연은 우리의 연구가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고 더 많이 웃게 만드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성고용과 아동보육, 교육비와 육아부담, 사회안전망 등 우리 이웃들의 삶을 보듬는 살가운 연구로 사회의 그늘진 곳을 비추고, 아픈 곳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이것이 새사연이 생각하는 ‘살 맛 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연구센터 소개

이상동

연구센터장 | 고용 및 산업정책

누구나 인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라 믿고 살고 있다. 좋은 사람과 더불어 살고 따뜻하게 어울리는 데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다. 그러나 슬픔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면 괴로움에 빠진다. 새사연에서 세상과 맞서는 힘을 얻는 것에 무한히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고려대 기술정책 박사과정 수료, 카이스트 재료공학 박사과정 중퇴

최민선

상임연구원 | 교육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 현실 속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 그래서다. '선생님'이라는 오랜 꿈 대신 정책대안을 생산하는 연구원을 택한 것은. 온 국민의 참여를 통한 교육개혁, 그 밑그림을 디자인하고 싶다. 한양대 교육학 전공(국어교육학 부전공)

이은경

상임연구원 | 사회정책 및 보건 의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탐구하며 살고 있다. 인간의 본성에 맞는,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한익대 9년 보낸 것에 대해 아까워하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힘들지만 5%의 선비만 있으면 세상은 좋아진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출근 중이다. '염치를 갖고 살자'가 좌우명이다. 원광대 산업한의학 박사. 한의사



여
경
훈

상임연구원 | 거시경제 및 금융

한 마리의 청개구리는 매일 아침 하루도 쉬지 않고 높이뛰기 연습을 한다. 첫날은 반 뼘을 뛰지만, 이튿날은 한 뼘을 뛰고, 다음 날은 한 뼘 반을 뛰고, 그 다음 날은 두 뼘을 뛰고... 하늘에 닿아 보려고 뛰지만, 결국 닿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늘은 끝이 없으니까. 그러나 청개구리는 닿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오늘도 쉼 없이 뛸뛸이를 하며 행복하다. 아들 산이가 언젠가는 달을 날을 그리면서... 고려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박
형
준

상임연구원 | 정치경제 및 기업연구

훗날 자본의 이윤을 위한 세계 체제가 인류의 행복한 삶을 위한 체제로 대체될 때, 글로벌 협력체제를 설계하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다. 캐나다 요크대 국제정치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이
수
연

상임연구원 | 가계경제

공부 잘하던 우등생으로의 10대, 운동권 학생으로의 20대를 지나 30대에 막 진입했다. 20대까지는 모든 게 확실해보였고 자신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쓰는 일에 있어서 능력의 한계를 많이 느낀다. 그래도 비루한 보고서를 향해 따뜻한 칭찬을 보내주는 새사연 회원들을 보며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해 생업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사는 새사연 회원들을 보며 인생에 대해 배운다. 연세대 경제학과 석사과정 재학

김
수
현

상임연구원 | 노사관계 및 노동경제

대학을 들어온 후 10년을 넘게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을 겨우 따라가고 있다. 뛰어나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못하지만, 나의 발전이 노동하는 다수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작으나마 일조할 수 있길 바라며 노동경제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다. 고려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생활인이 꿈꾸는
한국 사회의 진보적 대안"

4년 전 새사연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새사연의 첫 책에 담긴 첫 마음을 떠올리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06년 7월
새사연이 세상에 내놓은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책에는 막 출발선을 벗어난

새사연의 ‘첫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마치 수억 광년 떨어진 별에서 수억년 전 우주의 모습을 엿보듯
이 책을 통해 4년 전의 첫 모습을 돌아보려 합니다.

출발을 함께 하지 못했을 많은 회원 여러분과
새사연의 ‘첫 마음’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합니다.

김문주 · 김병권 · 박세길 · 손석준



제목과
부제

꿈꾸는 연구소 새사연 신자유주의를 뛰어넘을 대안을 상상하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신자유주의와 한미FTA 그리고 분단체제 뛰어넘기

새사연은 꿈을 꾸기 위해 문을 연 연구소입니다. 첫 번째 책에 붙인 '상상력'이란 이름이 제법 잘 어울리는 이유입니다. 이른바 '진보 위기론'이 고달픈 현실에 절망감을 더하던 시절, 새사연은 우리 사회의 상상력의 크기가 곧 희망의 크기라는 믿음으로 '대안 연구'라는 새로운 영역을 누구보다 앞서 열었습니다.

저자

나와 이웃을 위해 팔 걷어붙인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연구소

생활인이 꿈꾸는 한국 사회의 진보적 대안
김문주 · 김병권 · 박세길 · 손석춘 · 정명수 · 정희용

책에 등장하는 6명의 대담자들은 대학에서 치열하게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경험을 가진 40대들로서 그 동안 언론인으로, IT엔지니어로, 한의사로, 벤처기업 경영자로, 사회운동가로 살아왔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이 6명은 새사연의 창립을 이끈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새사연이 진정 아름다운 이유는 그 출발의 평범함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추천사

등불 꺼진 시대에 햇불을 들어 내일을 밝히다

“이 등불 꺼진 시대에 우리의 40대, 한국 사회의 허리를 이루고 있는 세대들이 순정하고 치열한 문제의식으로 불붙인 햇불을 들어올렸다. 이 책의 갈피갈피에서 우리의 내일을 밝히는 그 불빛을 보게 될 것이다.” - 조정래(소설가)

등불 꺼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햇불’을 들어올리는 일, 그것이 바로 새사연의 출발이 갖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4년, 누군가는 오래지 않아 불꽃이 사그라질 것이라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무도 함께 햇불을 들려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사연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장·부원장 소개

손석춘 원장 | 이사장



〈한겨레신문〉 논설위원과 노조위원장, 전국언론노조연맹 위원장을 역임했고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공동대표로도 활동했다.

민주언론상, 통일언론상, 한국언론상, 한국기자상, 안중필자유언론상을 수상했고, 저서로는 〈신문읽기의 혁명1,2〉, 〈여론읽기의 혁명〉, 〈우리언론, 무엇으로 다시 살 것인가〉, 〈주권혁명〉, 〈학습하는 당신이 희망이다〉 등이 있다. 장편소설 〈아름다운 집〉, 〈유령의 사랑〉, 〈마흔아홉통의 편지〉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세대 철학과와 고려대 정치학과 대학원을 거쳐 성균관대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병권 부원장



80년대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90년대 10여 년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일해 왔다. KCC정보통신 의료사업 팀장, (주)소프트그램 금융프로젝트 총매니저 등을 거쳤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바뀐 5년의 전망,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성장률 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의 진실〉 등을 함께 썼다.

연세대 화학과를 졸업했다.

김문주 부원장



80~9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몸담은 이후 늦깎이로 한의사가 되어 한의원을 운영중이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과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등을 함께 썼다.

연세대 식품공학과와 경원대 한의학과를 졸업했다.

새사연 가족 4년 새 900명으로 늘었습니다



매년 200명 이상 꾸준히 늘어 곧 1천명 시대 열릴 듯
소통을 넘어 집단지성이라는 화두를 고민해야 할 때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많은 민간단체와 연구소들이 재정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새사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900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한결같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묵묵히 새사연을 지켜주고 있는 900명의 회원들,

한 번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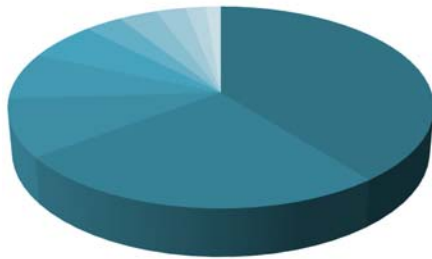
회원의 평균 나이는 39.7세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문직·사무직 노동자가 절반 차지

우선 새사연 회원의 평균 나이는 39.7세이며, 약 64%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이 조금 넘는 수가 전문직·사무직 노동자이고, 생산·기술직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약 18%를 차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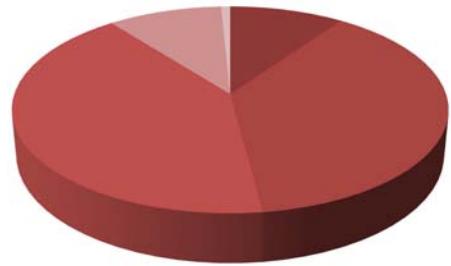
새사연을 후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려 85.1%가 '새사연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라고 답했고, 향후 대안 연구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답도 9.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보고서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 이라는 답은 5.2%에 그쳤습니다.

새사연 회원의 지역별 분포



서울	356명
인천 경기	231명
광주 전남	84명
부산 울산 경남	68명
대구 경북	55명
전북	30명
대전 충남	30명
제주	24명
강원	16명
충북	12명

새사연 회원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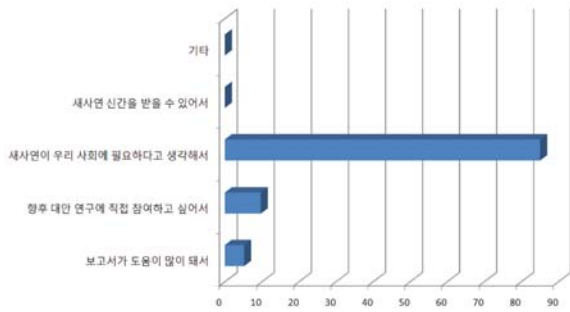


20대	88명
30대	343명
40대	373명
50대	88명
60대 이상	7명

일주일에 1~2회 이상 사이트를 방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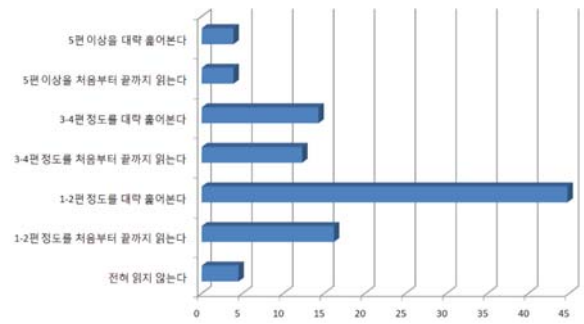
월 1~2편 정도의 보고서를 숙독

새사연 회원의 절반은 새사연saesayon.org에 일주일에 1~2회 이상 방문하며, 약 3분의 1은 월 1~2편 이상의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회원의 약 60%는 지인들에게 새사연 회원 가입을 권한 적이 있으며, 가입을 권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3분의 1이 '관심사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새사연을 후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고서가 도움이 많이 돼서 5.2%
- 향후 대안 연구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서 9.7%
- 새사연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85.1%
- 새사연 신간을 받을 수 있어서 0%
- 기타 0%



여러분은 새사연 보고서를 한 달에 얼마나 읽습니까?

- 전혀 읽지 않는다 4.5%
- 1-2편 정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16.2%
- 1-2편 정도를 대략 훑어본다 44.8%
- 3-4편 정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12.3%
- 3-4편 정도를 대략 훑어본다 14.3%
- 5편 이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3.9%
- 5편 이상을 대략 훑어본다 3.9%

보건복지·교육분과 정책 대안 담은 단행본 준비 광주·제주 이어 부산·전주도 지역모임 앞뒀 4월 사이트 새 단장으로 집단지성 연구의 새 지평 열 것

어느덧 900명의 대가족과 5000명이 넘는 이웃을 둔 새사연이지만 소통에 있어 아직은 서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분과와 지역모임들은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월 1~2회 분과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보건복지분과와 교육분과는 올해 안에 집단 연구의 성과를 모아 단행본을 출간할 계획이며, 광주와 제주 지역모임에 이어 부산에서도 지난 11월에 첫 지역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전주 회원들도 3월 중순 첫 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 봄을 맞아 새사연 saesayon.org도 새 단장에 한창입니다. 이번 새 단장은 소통을 넘어 집단지성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새사연은 앞으로도 여러분 곁을 지키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회원들의 **쓴소리 단소리**

세미나 토론회 말고도 회원 간 동호회 활동이나 인간적인 교류의 장이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을 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의 진실〉을 잘 읽었습니다. 읽기 편한 보고서와 정밀한 분석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새로운 길을 여는 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길...

우리 사회에 새사연의 존재가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새사연과 회원 사이의 교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보고서나 책도 좋지만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등등을 수시로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대안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실 참여하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 생각에 제 나이 때의 회원들이 별로 없어서, 참여하기가 쑥스러워서 망설여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사연과 같은 단체에서 역사의 희망을 느끼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막연한 대안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에 쫓긴다는 이유로 참여가 극히 저조하지만 늘 새사연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사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새사연 식구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늘 함께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더라도 새 세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연구자료가 잘 읽히지 않습니다. 제가 국문과 출신이며 철학적인 글들에 익숙해져 있음에도, 왠지



독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글쓰기가 눈에 많이 띕니다.

제 생각으로는 연구의 질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갖춰나가고 있으니, 이제 그 역량에 맞는 마케팅 부분에서의 신경도 좀 쓰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갈수록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귀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시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다는 사명감으로 끈질기게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진보의 큰 대안으로 성장하여 2012 대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사연의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역 차원에서 하나 만들고 싶은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테면 새로운사회를여는 인천연구원.

의지만 있을 뿐 행동이 없는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기를 바랍니다.

새사연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적 싱크탱크의 새로운 돌파구를 여시길 바래요.

새사연이 회원의 힘으로 운영되는 자주적인 연구원이라는데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이후 많은 시민단체들이 정부보조금이 적어져 고생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새사연의 존재감은 힘이 되지만 지금보다 많은 분들이 새사연을 알고 활발하게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생활인 중심의 연구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새사연이 있어 희망이 있습니다. 더 발전해서 자본의 삼성연구소보다 더 큰 진보적 가치와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연구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칼럼 수준의 보고서는 읽고 싶지 않습니다. 새사연에서 만큼은 일관된 흐름이 있는 보고서, 그 흐름이 대안을 향해 힘겹지만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는 보고서, 각자의 물방울을 모아 물줄기를 만드는 연구의 상호 강화가 이뤄지는 보고서, 회원들의 참여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 결과로 보다 새롭고 강화된 보고서를 보고 싶습니다. 새사연이니까...^^

열심히 연구하고 결과를 쉽게 알려주세요. 구체적인 행동지침도 함께 제시하면 좋을 듯.

미디어센터 소개



윤찬영

미디어센터장

삶의 좌우명은 '일신우일신', 존경하는 인물은 '김삿갓'이다. 마음은 늘 새로운 것을 좇지만 손에 쥐는 작업 결과는 진부하기 일쑤라 괴롭기만 하다. 새사연이 꼭 그 가치만큼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묵묵히 센터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최정은

미디어팀장

나의 한계를 늘 자극해주는 새사연은 제2의 배움터이다. 헛된 욕망을 일깨워주고, 변화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 또한 큰 행운이다. 더디고 힘들지만 세상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며, 많은 이들과 미디어로 통하고 싶다.

정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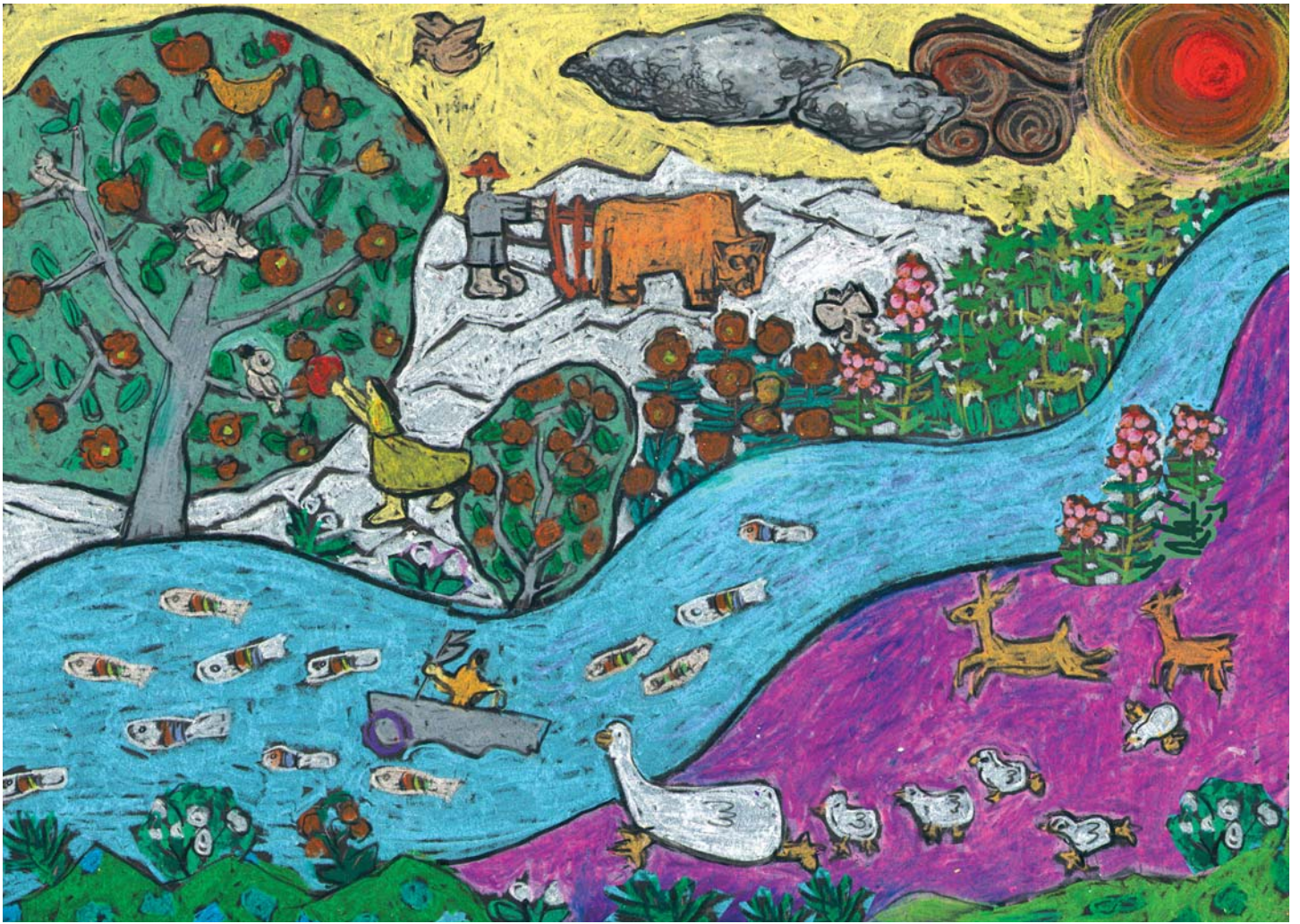
디자인팀장

머리와 몸이 따로 놀아 늘 좌충우돌 한다. 그렇지만 흥미 위주의 삶 보다는 가치있는 삶에 주목하려 애쓰고 있다. 새로운 사회는 창조와 열정으로 만드는 것이라 믿지만, 창조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시름에 잠긴다. 시름시름...

이대원

교육팀장

세상은 재능있는 사람을 키워주지만, 언제나 재능보다는 열정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열정의 결과가 실패더라도 상관없다. 미디어에 대한 이해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며 하루하루 출근한다. 하지만 여전히 능력 없는 영화 애호가인 건 분명하다.



새사연 회원 고미정님의 그림

경계의 숲을 가로지르는 투명한 '금융의 강'은
 제 길을 따라 흐르며 크고 작은 나무들과 풀꽃들을 가리지 않고 적시고,
 탐스런 열매를 맺은 '기업의 나무' 들은
 함께 열매를 키워준 해와 바람과 새의 몫을 기꺼이 나누는 세상,
 '정부의 해'는 어느 곳 하나 그늘지는 일이 없도록 온 누리를 따뜻하게 비추고,
 '투기의 먹구름'이 너무 많은 비를 뿌리지 않도록 바람으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
 그리고 누구라도 자신의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한만큼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것이 바로 새사연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사회'입니다.